

#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p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나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주 일 미사 전 30분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관 면 혼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 **위령성월 동안 수여되는 전대사 (교황청 내사원 교령)**
  - 묘지를 참배하여, 또는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에게 수여되는 전대사는 통상적으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이지만, 이 기간을 **11월 한 달 동안의 어느날이 되어도 전대사를 수여한다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19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들은 모든 신자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며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을 위한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칩니다.**

- 위령 시간 전례의 아침 • 저녁 기도  
- 묵주기도  
-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위령기도)

- **교구장님 영명축일 '영적예물' 봉헌**
  - 11월 30일(월)은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입니다. 교구장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 ▶묵주기도, ▶주교를 위한 기도, ▶화살기도, ▶희생

-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과 원장 수녀님 피정**
  -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께서 11월 23일(월)~12월 1일(화)까지 피정이시며 본당 원장 수녀님께서 11월 23일(월)~12월 2일(수)까지 피정이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탄 대축일 제대꽃 봉헌**
  - 예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며 제대 장식을 위하여 꽃봉헌 하실 단체나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특강 일시 및 주제**
- |   |
|---|
| <b>대림특강 1: 12월 8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b>  |
| <b>“코로나 시대의 건강과 희망 찾기”</b>              |
| 이나미 교수 (서울대정신의학과)                       |
| <b>대림특강 2: 12월 15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b> |
| <b>“코로나 19와 공동체의 삶”</b>                 |
| 정석 예로니모 교수 (서울시립대)                      |

- **대입수험생 미사(안수) 및 수험일 학부모 피정**
  - 대입 수험생 미사: 12월 1일(화) 오후 7시 미사(안수)
  - 수험생 학부모 피정: 12월 3일(목) 오전 8시 30분~
  - 접수마감: 11월 29일(일)까지
  - 문의: 백 로사 (010-8651-8000)

- **사랑의 연탄나눔 (연탄 1만장 모금, 1장당 800원)**
  - 일시: 12월 5일(토)오전 7시 30분, 성당출발(※봉사자100명)
  - 오전 9시~ 13시까지 연탄나눔 봉사활동, 후원물품 전달
  - 수급 대상자: 정릉동 성당 관내에 소외된 불우이웃
  - 사랑의 연탄나눔에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봉사자는 차량을 성당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당일 혼인미사가 있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의: 현 베로니카 (010-7169-7025)
- **군복무자 성탄 선물보내기 (11월 29일까지 접수마감)**
  - 본당 신자 중 군 복무중인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고자 하오니 사무실에 비치된 주소록에 정확한 부대 주소, 이름, 계급, 전역날짜,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자들 성탄 선물 보내기에 빨랑카 접수받습니다.)
  - 문의: 채 세레나 (010-2714-9295)
- **희망 트리 설치 (11월 22일(오늘), 2층 대성전 로비)**
  - 본당 교우분들의 올해의 감사한 마음과 2021년도 소원을 희망카드에 담아 희망트리에 달아주세요♡
- **제 28회 금요 콘서트**
  - 앙상블 토니카와 함께하는 힐링 클래식 (본 공연은 사회적 거리 및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출연: 바이올린(정원영, 나승준), 비올라(유리슬), 첼로(최지호)
  - 일시: 11월 27일(금) 오후 8시, 2층 대성전
- **제 2회 언택트 청년 특별 콘서트 '청고마비'**
  - 주제: 공정이란 무엇인가: 너 공정? 나 불공정!!
  - 일시: 12월 1일(화) 오후 7시 30분
  - 출연: 류호정(국회의원), 김누리교수, 이신혜(국무총리 비서실 행정관)
  -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유튜브, ZOOM
  -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
  - 문의: 이 미카엘라 (010-9985-5452)
- **올 한해도 잘~읽었다!**
  - 올 한해 마치면서 전신자 대상으로 본당 추천 도서를 읽으신 분들의 '느낌! 한마디'를 받습니다. 11월 2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뽑히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올해 추천도서 목록	
칠층산	아이들의 품격
엘리아와 함께 걷는 40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내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 **11월 22일(오늘): 시설보수 2차**

성가번호 입 당: 75      예물준비: 220, 221      성 체: 167, 168      파 견: 73

**화 답 송**

주님 - 은 나의 목 - 자, 아쉬울 것 없 어 라



##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47)

### 서평\_「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4)\_사랑의 하느님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4년째 하고 있는 대건안드레아 형제는 진통제에 의지하며 고통스런 나날을 지내고 있다. 다리 통증이 심하다보니 진통제를 맞은 지 5분도 되지 않아 통증을 호소하니 간호사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수녀님은 그 형제가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바라는 마음에 고통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린다. “고향이 함안이라면서요? 거기 경치 좋지요? 좋은 곳이 많나요?” 그 형제는 아프기 전까지 주일마다 등산을 다니며 산악회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골프와 테니스에 빠져 매주일을 바쁘게 지냈다고 한다. 시골 본당 신부님이 부탁했던 사목회장, 꾸리아 단장 등의 직책도 거절하면서까지 세상 것에 빠진 것이다. 본당에서 간부를 맡으면 주일에 성당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나 등산도 못하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도 못할 것 같아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하겠다고 거절했지만 한두 번 거절하는 것도 미안해서 주일미사에 슬슬 빠지다보니 오랜 시간 냉담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직장생활을 강원도 쪽에서 하다 보니 설악산을 많이 다니면서 골짜기마다 그림이고 사시사철 갖가지 아름다움을 형언할 길이 없다며 산의 경치와 새, 풀꽃 향기, 나무마다 다른 향기들을 경험하는 것이 살면서 기쁘고 행복이라고 수녀님에게 설악산의 절경을 생생이 묘사한다. 5분만 지나도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치던 형제님은 40분이 지나도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대화를 한 것이다. “어, 신기하네요. 수녀님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통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수녀님 덕분입니다.” “제 덕이 아니라 하느님 덕분이죠.” “하느님께서 이곳을 병실이 아니라 설악산 골짜기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수녀님 말대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느님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받은 것이다. 수녀님은 그 형제를 여행가는 마음으로 방문하고 그때마다 그는 수녀님에게 설악산의 이곳저곳을 실감나게 구경시켜 준다. “야~호! 소리를 지르면요, 메아리가 돌아오는데요, 그 산울림을 들을 때 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혹시, 그 울림이 하느님 목소리 아니었을까요?” “그때 그 울림이 하느님 목소리라는 걸 형제님이 아셨다면, 엄청난 체험을 하신 거예요.”

수녀님은 그 형제가 체험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베풀어주신 은총이고 안배임을 깨닫게 해주는 ‘신앙 해석자’다. 일상의 경험과 체험이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다양한 모습으로 늘 함께 하시기에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우리가 하느님의 눈을, 하느님의 귀를, 하느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눈과 귀와 목소리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마련해주신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것이 천국임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대건안드레아 형제는 수녀님이 끼워준 목주반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혼란했던 생각이 사라지고 불효했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병자성사를 받고 편안히 선종하였다. 자신이 하느님께 사랑 받는 자녀였음을 깊이 깨달으며 그분의 품안으로 행복하게 돌아갔다.

2020. 11. 22 청담동 성당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11월 11일 ~ 11월 17일)

동헌 예불		교무금 납부 현황			
연중 제 33주일	9,454,740원	총 세대수	2,548세대		
교무금	25,130,000원	총 납부세대	1,250세대		
성소후원금 (12건)	375,000원	지난 주 납부세대	9세대		
		총 납부율 (%)	49.1%		
감사 헌금					
고 엘리사벳	200,000원	윤 아녜스	50,000원	성지순례동호회	300,000원
정 캐더린	200,000원	정 아우구스티노	500,000원	수필동호회	100,000원
이 안드레아	100,000원	김 베로니카	50,000원	-	-
이 베드로	200,000원	김 예로니모	50,000원	-	-
합계: 1,750,000원					